

이 장 장애는 현대인이 흔히 접하게 되는 질환의 하나
나로, 현대 사회의 복잡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운동 부족 등은 위장 장애를 증가시키는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소화불량, 속 쓰림, 신트림, 배변 장애 및 불규칙한 배변 습관 등으로 진찰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은 '신경성 위장 장애', 혹은 '기능성 위장 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되며 상당수는 내시경과 상부 위장관 조영술을 통해 소화성 궤양으로 진단을 받는다. 이러한 환자의 20%정도는 아무런 증상 없이 궤양이 진행되어 출혈, 천공, 폐쇄 등의 합병증을 나타내기도 한다.

소화성 궤양이란 위나 십이지장의 점막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되어 유실되고 점막하 조직이 드러나는 상태를 말한다. 소화성 궤양은 세계적으로 전체 인구의 5-10%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질환이고 남자가 여자보다 약 2-3배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십이지장궤양은 위궤양보다 좀더 젊은 시기에 호발하여 십이지장궤양은 30-50세, 위궤양은 40-60세에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궤양은 무 증상에서 격심한 증상까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약 80%정도에서는 상복부 동통이 발생하며 위부제감, 팽만감, 속쓰림, 오심, 식욕 이상이 발생한다.

동통은 명치 부위에 주로 발생하며 공복 시와 야간에 심해지고 섬유성, 혹은 자극성 식사, 음료, 긴장, 파로 등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이 심하면 등이 아픈 것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가끔은 심장의 통증과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십이지장궤양은 위궤양과 증상이 유사하나 복통이 정 중앙보다 우측 상복부에 압통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공복 시 특히 야간에 심외부 복통과 팽만감이 있으며 식사 섭취로 증상이 경감한다. 그러나 십이지장의 변형이 심해지면 식사 후에 팽만감이나 중압감이 심해진다. 식후 90분에서 3시간 사이에 복통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다.

한의학에서 인체와 질병을 해석하는 방식은 서양 의학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병명과 병의 분류법,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인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식의 틀, 관찰하고자 하는 인체 현상의 영역,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결정하는 일상적 사고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서양 의학은 개념상 분리 가능한 범주의 질병들 혹은 질병의 인자들에 주된 관심을 기울였으며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들을 분리해 내고, 변화시키고, 통제하고, 파괴시키는데 주력했다.

진찰 과정에서 서양 의사는 먼저 증상에서 출발해서 그 밑바탕에 깔린 메카니즘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한의학에서 진단은 특정 질병 인자나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묘사에 가깝다.
 원인과 결과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인 유형의 파악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통해 특정한 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 낸다. 반면에 한의사는 인간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 환자의 생리, 심리상태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 일반적인 특성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조합하여 부조화의 유형을 알아낸다. 이 부조화의 유형이 환자의 신체적 불균형을 설명해 준다.

이러한 총체적 형태 즉, 부조화의 유형이 치료의 기본 틀을 제시해 준다. 그에 따른 치료란 부조화의 상태를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 즉 인체의 조화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과 서양 의학간의 이러한 인식 차이는 소화성 궤양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위궤양은 보편적이며 흔한 질환으로 한의학에서 많이 치료하는 질환이므로 다음과 같은 임상 연구는 자주 이루어져 왔다.

먼저 서양 의사가 위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부 위장관 조영술과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이중 위궤양이라는 동일한 병명으로 진단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의사의 진찰을 실시한 결과 모두 다섯 가지의 각기 다른 한의학적 진단이 내려졌다.

첫 번째 부류는 위(胃) 부위를 만질 때 통증이 심해지고 얼음찜질을 했더니 통증이 누그러졌다. 환자의 체격은 튼튼하고 안색은 불그스레하며, 목소리는 쉼 듯하고 깊었다. 태도는 단호하고 공격적인 듯했다.

또 변비가 있었고 소변은 어두운 노란색이었다. 혀

에는 황색의 번들번들한 설태(舌苔)가 끼어 있고 맥(脈)은 실(實)하고 철사줄 같았다. 이 경우는 비장(脾臟)의 습열(濕熱)로 진단이 되는데 이는 붉은 안색, 소변 색, 누런 설태, 강한 성격, 얼음의 차가운 기운에 의해 덜해지는 통증 등 겉으로 드러나는 열(熱)의 현상으로 미루어 보아 몸 안에 울체된 열로 인해 위장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경우는 황연, 황금 등 차갑고 건조한 성질의 약으로 비장에 울체된 열과 습을 제거함으로써 치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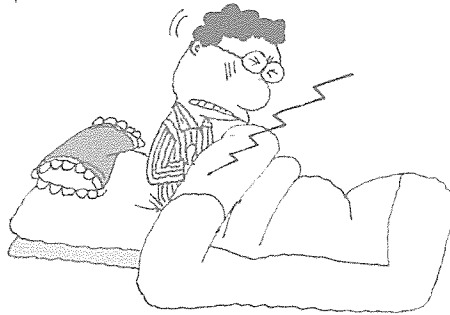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마른 체격에 안색은 잿빛인데 볼은 불그스레했다. 계속 갈증을 호소했고 손바닥에 땀이 많았으며 변비와 불면증, 그리고 밤에 땀을 흘리는 경향이 있었다.

신경질적이고 불안한 태도를 보였고 혀는 건조하고 약간 붉어 보였으며 설태는 없었다. 맥은 가늘고 빨랐다. 이 경우는 위(胃)의 음허(陰虛)로 진단이 되는데 몸이 전체적으로 건조하고

물기운이 부족하여 몸이 마르고 갈증, 변비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건조한 성질의 위장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붉으스레한 안색, 갈증 등은 물기운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열(虛熱)의 현상이다. 이 경우는 옥죽, 황정, 생지황, 석곡 등 위

장의 음기(陰氣)를 보하고 열을 내리는 약으로 치료한다.



세 번째 부류는 통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이고 이 통증은 통증 부위를 누르거나 따뜻하게 해주면 완화되었다. 때로는 식후에 통증이 완화되기도 한다. 오한이 있고 얼굴은 창백하였으며 낮에 식은땀을 흘렸고 잠을 많이 자려는 경향이 있다.

소변은 맑으나 잦았고 때로는 한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을 깨기도 한다. 소심하고 약간 겁에 질린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혀는 축축하고 창백하며 맥은 허(虛)하다.

이 경우는 비(脾)의 허한(虛寒)-(소화기의 양기(陽氣)가 부족함)-

이라고 진단이 되었는데, 무기력하고 추위를 타며 따뜻한 것을 좋아하는 경향, 소변의 양이 많고 맑음, 배를 누를 때 통증이 오히려 경감됨 등으로 미루어 몸의 양기가 부족하고 정기(正氣)가 허함으로 인하여 속이 냉해지고 이로 인해 위장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 것이다.

이 경우는 인삼, 건강, 백출, 양강 등 속을 덥히고 양기를 보하는 약으로 비장의 허한을 치료함으로써 위궤양을 치료한다.

네 번째 부류는 매우 심한 발작적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움직임은 느리고 무기우며 더운물을 마시면 통증이 완화되고 그 부위를 누르면 심해졌다. 얼굴은 밝고 흰색을 띠었고 대변은 묽었다. 혀에는 두텁고 축축한 흰색 설태가 끼어 있으며 맥은 팽팽하면서 때 쪼러웠다.

이 경우는 비(脾)와 위(胃)를 침범한 과도한 한습(寒濕)으로 진단되었는데 이는 위장이 냉(冷)함으로 인해 수분의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습사(濕邪)가 정체된 상태로 세 번째 부류의 허한(虛寒)과는 다른 실한(實寒) 상태를 반영한다. 배가 차가우면서도 누르면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 경우는 오작산 등 한습을 제거하는 처방으로 위궤양을 치료한다.

다섯 번째 부류는 종종 심트림이 나고 두통을 호소

한다. 날카로운 통증이 복부 마사지에 의해 경감되는데 열이나 얼음에 의한 변화는 없다. 번덕스럽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화를 내거나 우울해 지면 통증이 더 심해진다.

혀는 정상이나 맥은 철사줄 같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 경우는 비(脾)를 침범한 간(肝)의 부조화라고 진단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소화기에 있다기보다는 감정의 조절이 적절히 되지 않아 신경이 긴장되고 간장(肝臟)의 소설(疏泄)기능이 울체되어 이차적으로 위장(胃腸)에 병변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향부자, 시호, 청피 등의 한약으로 간장에 울체된 기운을 풀어주어 과도하게 긴장된 신경을 이완시켜 줌으로써 마음이 안정되고 위궤양이 좋아질 수 있다.

이처럼 한의학에서는 서양 의학에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증상과 증후들을 찾아내 이들을 통합함으로써 환자들을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별, 진단하였다.

부조화의 유형은 질병의 진단 결과물이자 의사에게 치료의 방침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병과 비슷하다. 그러나 부조화의 유형은 그러한 부조화가 발생한 환자 자신과 떼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의미의 병과는 다르다.

어떠한 증상도 전체와의 관계를 떠나서는 이해될 수 없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원인을 추적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나타내는 몸의 불균형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한의학이다.

한 부분일 뿐인 증상을 통해 몸 전체 유형을 파악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의학의 질병에 대한 접근 방법이 서양 의학의 방법론에 비해 다소 거칠고 덜 분석적이지만 그 자체로 논리성과 과학성을 확보하고 인체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상기한 위궤양의 진단·치료 과정은 한의학적 질병 치료 방법의 특징과 의미를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